

남은 변수들

17대 대통령선거가 꼭 9일 남았다. 각 후보들의 선거구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독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변화라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지지율을 조금 회복하면서 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는 것. 하지만 1위를 위협하기에 여전히 역부족이다. 대선 승패를 결정지을 남은 변수 몇가지를 살펴본다.

1 BBK 여진·추가 폭로 위력 발휘할까

BBK 사건 여진 등 마지막 폭로전을 대선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BBK 사건'은 지난 5일 검찰 수사발표로 일단 외견상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검찰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신당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이 검찰 수사결과에 반기를 들면서 '반 이명박 전선'을 구축할 태세여서 수사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 공방'은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후보가 지난 7일 방송연설을 통해 검찰 발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범여권 일각에서 '이명박 후보 참여정부 비밀살'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또 하나의 논란거리로 부상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후보에 대한 막바지 폭로전도 정치권의 화제다. 이 후보의 여자 문제, 자식 문제 등이 얼마 전부터 정치권에서 흘러다니면서 대선에 임박한 순간에 발표된다는 소문이 그것. 또 잡적한 에리카 김의 추가 폭로 내용도 대선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2 후보단일화 '反李 연대' 성사?

후보단일화파관 대선지형을 뒤튼을 최대 변수 중 하나다. 핵심은 이명박 후보에 맞서 이른바 '반 이명박 진영'이 어떤 연대의 틀을 구축하느냐는 것. 하지만 이념 구도상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항력을 갖는 '후보조합'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후보가 3자간 또는 양자간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3자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봐도 이명박 후보(40~45% 안팎)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20%대 중반이지만 전통적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가 자못 크다. BBK의 뇌관이 제거된 현재로서는 범여권이 유일하게 기대를 거는 승부수다. 하지만 협상의 전도는 극도로 불투명해 보인다. 따라서 범여권 뿐 아니라 이회창 후보까지 포함하는 연대가 되기 전에는 판도를 흔들기 어렵다는 것이 분석까지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념 구도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3 투표율 60%대로 떨어질까

투표율이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사상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역대 대선 투표율은 국민의 직접투표가 부활된 87년 13대 대선 때 89.2%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이후 92년 14대 81.9%, 97년 15대 80.7%, 2002년 16대 70.8%로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이명박 후보의 대세론이 형성되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박빙의 선거구도가 아니어서는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최악의 경우 투표율이 5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이명박 후보가 유리하고 범여권에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일부는 충성도가 낮아서 투표율이 낮으면 오히려 이 후보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4 호남·충청표 멍치나 흠어나

지역주의의 대선에서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지역주의의 성향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은 그동안 뿔뿔 뿔뿔 호남 표심이 커다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을 봤을 때 한데 뭉쳐 밀어주겠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을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은 오히려 충청표심의 향배다. 이명박 후보는 충청 땅주었던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의 지원을,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JP의 '후계자'격이던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로부터 단일화 선언을 이끌어내고 최후의 '중원혈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재해 있던 호남 표심이 막 바지에 묻히고 다른 변수들과 맞물릴 경우 막판 대선 구도를 흔들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8일 광주공원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 지원 유세에서 이낙연 대변인이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나라당 광주선대위 관계자들이 8일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유세 도중 울음을 선보이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처음으로 8일 광주를 찾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총장로 1가 입구에서 광주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부패세력 집권 광주가 막아 달라”

광주·전남 유세전

17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두 번째 주말과 휴일인 8~9일 무소속 이회창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등이 광주·전남을 찾아 유세를 펼친 데 이어 대통합신당과 한나라당 대선캠프도 지역 곳곳을 누비며 중반 표심잡기에 주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대철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변인, 지병문 의원 등과 함께 8일 낮 광주공원 앞에서 유세를 펼쳤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패세력의 집권 저지를 위해 광주가 민주평화개혁세력의 중심이 돼 달라”며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이후 전남선대위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해남, 장흥, 장성을 잇따라 찾아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정동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8일 오전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서 한 영 최고위원, 유준상 상임고문 등과 함께 유세를 갖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가장 먼저 영산강 뱃길복원사업부터 시작하겠다”며 취약지역 민심 다잡기에 힘을 쏟았다. 광주선대위는 9일 광천동종합버스터미널과 광주공원 광장 등에서 유세전을 이어갔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처음으로 7~8일 여수와 전주, 광주를 잇따라 방문, 호남 표

심잡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회창 후보는 광주 총장로 유세에서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아름답고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 있는 이 고장에서 저는 정치적으로 이방인이었다”면서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여러분의 힘으로 이제 세번째는 이회창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의 총장로 유세가 진행되는 동안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 연합 학생 30여명은 “비리후보, 이회창은 광주를 떠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 후보는 8일 밤 광주 총장로에서 ‘문국현과 함께 하는 대한사람들’(약칭 문합대)이 개최한 ‘반부패 결의대회’에 참석해 “썩은 고목으로는 시대정신의 꽃을 피울 수 없다”며 정동영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삶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가의 미래에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선은 문국현 대 이명박의 대결 구도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8일 곡성과 구례의 5일 장터와 순천을 찾아 “절망의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정치 세력은 고난과 꺾박을 겪은 진정한 야당인 민주당”이라며 “선거 혁명을 통해 ‘서민의 친구’ 이인제를 뽑아주세요 한다”고 역설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총선 입지자들 물밑 발길 분주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17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는 11일부터 18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대선 정국 물밑으로는 총선 입지자들의 발길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18대 총선이 내년 4월9일 치러진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모든 체제를 ‘총선 모드’로 전환할 전망이다. 어서 내년 초반부터 뜨거워 총선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우세 국면 속에 사실상 종반전에 진입함에 따라 벌써부터 내년 총선과 관련된 각종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범여권의 내년 총선 전망은 암울하다. 정동영 후보가 막판 대역전에 성공한다면 범여권은 신당을 구심점으로 통합되면서 내년 총선에서도 여세를 몰아갈 수 있지만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현실화된다면 범여권의 내년 총선 참패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 초기 대통령에게 국정 개혁과제를 수행할 추진력을 쥐어준다는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에서도 통합을 이루지 못한 범여권 세력인 총선에서 통

합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범여권 총선 참패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 거대 권력에 대한 견제 심리를 나타낼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민심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범여권에서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범여권이 내년 총선에서 70석 이상의 의석을 건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 호남과 수도권 일부, 충청권 일부에서 의석을 확보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전남의 내년 총선 구도는 그 어느때보다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치열한 경쟁전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이 대통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최소한 4~5개 정당에 경쟁권이 벌어지면서 많은 예비 후보군이 형성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 후폭풍에 힘입어 17대 국회에 진출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 민심의 평가가 싸늘하다는 점은 총선 입지자들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벌써부터 광주·전남지역 각 지역구에서는 자천타천으

로 최소한 5명 이상의 예비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에서는 바람으로 ‘뺏기’가 정해진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18대 총선에서는 검증된 인재들을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18대 총선 후보감으로 이용섭 건교부장관, 장병안 기획예산처 장관, 진원철 감사원장, 조영택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임상규 농림부 장관 등 현직 장관들과 김승규 전 국정원장, 김종민 전 검찰총장, 홍영기 전 서울경찰청장, 임내현 전 광주교감장, 이승재 전 해양경찰청장,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의 전직 장·차관급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사면 및 복권 여부에 따라 한 화갑, 박지원, 이정일 전 의원의 이름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정동영 후보 선대위 핵심에 포진한 이광수 수행부실장, 민영삼 언론특보, 김영근·김정현 수석 부대변인도 예비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서대석씨와 현 이형석 시민사회비서관도 예비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